

자료 2019.04.22 보도요청	보도자료 문의	환경재단 커뮤니케이션팀 김지은 선임 PD / 02-2011-4378 이혜란 PD / 02-2011-4338
------------------------------	------------	---

환경재단 4월 22일 지구의 날을 기해

글로벌 에코캠퍼스 준비위원회 발족

-100년전 독립선언 자세로 탄소문명 전환에 각계 33인 동참-

- 기후변화, 미세먼지, 플라스틱 대란 등 기후환경문제 심해지는데
- 기후환경문제는 지난 200년간 산업발전의 예상 못한 결과이자 여러 원인들 복잡해 해결의 주체 모호, 국내외 정부, 기업, 시민사회 연대해 해결할 중심축 필요
- 정확한 지식과 정보로 국민의 불안 잠재우고, 혁신적인 대안 제시하는 환경전문 민간 싱크탱크/차별적인 교육과정으로 글로벌 에코리더 육성/환경문제 해결에 직접 참여할 시민단체 및 청년 스타트업 등 지원
- 기업, 학계, 문화예술계 각계인사 33인 에코캠퍼스 준비위원회 발족
- 대학, 지자체, 국내외 환경단체 및 기업 등 참여...아시아 환경을 지키는 허브로 확장계획

환경재단(이사장 최열)은 무서울 정도로 심각해지는 기후환경문제에 실질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오늘 4월 22일 지구의 날을 맞이하여 각계 인사 33인과 함께 에코캠퍼스 준비위원회를 발족하였다.

정부, 기업, 시민사회의 협력과 교육을 통한 인재육성을 강조하며 이를 위한 전문기관의 필요성을 제안했고, 문제인식을 같이하는 각계 인사 33인과 함께 새로운 대안으로서 '글로벌 에코캠퍼스'를 추진하기 위해 준비위원회를 발족했다.

최열 이사장은 환영사에서 "2019년은 3.1운동 100년이 된 해이다. 당시는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민주열사들이 노력했고, 지금은 미래세대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다. 좁게는 국내에서 넓게는 지구촌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앞으로 이곳에 세워질 글로벌 에코캠퍼스는 정부, 기업, 시민사회와 함께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공간으로 만들어질 예정이니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고 관심을 촉구했다.

이어 정세균 前 국회의장은 축사에서 "환경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은 어린아이도 공감하는 부분이다. 한국은 땅이 좁고, 산이 많아 환경문제가 더 중요성을 가진 나라인데,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앞서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글로벌 에코캠퍼스 건립을 계기로 한국 환경은

동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글로벌 에코캠퍼스가 세워질 종로구의 김영중 종로구청장은 축사에서 “특히 종로에 글로벌 에코캠퍼스를 건립하신다니 감사하다며, 역사적인 동네이니만큼 주변 자연경관과 잘 어울리게 친환경적인 건축물을 지어줄 것.”을 당부했다.

환경재단 글로벌 에코캠퍼스 발족식에는 초청인사 2인과 준비위원회 33인 중 16인이 함께하여 자리를 빛냈다. 축사자로 나선 초청인사 2인 ▲정세균 前 국회의장 ▲김영중 종로구청장, 글로벌 에코캠퍼스 준비위원회 참석자 16인 ▲강신장 모네상스 대표 ▲강태선 블랙야크 회장 ▲고춘홍 이브자리 회장 ▲고현숙 국민대학교 교수 ▲김문수 aSSIST경영대학원 교수 ▲김준목 투비소프트 회장 ▲문국현 뉴패러다임 인스티튜트 회장 ▲승효상 이로재 대표 ▲안병덕 코오롱그룹 부회장 ▲윤순진 서울대학교 교수 ▲이상봉 홍익대학교 패션대학원장 ▲임옥상 임옥상미술연구소 소장 ▲장사익 음악인 ▲조동성 인천대학교 총장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 ▲한비야 월드비전 세계시민학교장 이다.

에코캠퍼스는 환경재단의 활동을 오래 지켜본 한 기업인이 2017년 여름 기부한 사재 10억원을 씨앗으로 지난 2018년 10월에 1,164m2(352평)부지를 구입하게 되었다. 앞으로 준비위원회와 함께 300인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방향을 구체화하고 300억원을 목표로 건축비 및 활동기금을 모금할 예정이다.

현재 효자동, 누하동 일대 서촌에는 환경운동연합을 시작으로 참여연대, 아름다운재단 등 국내 대표적인 시민단체가 자리하고 있다. 2020년 하반기 환경재단 에코 캠퍼스가 완성되면 단체간 시너지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진 1_ 환경재단 글로벌 에코캠퍼스 발족식_준비위원회 및 초청인사 단체 사진

사진 2_ 환경재단 글로벌 에코캠퍼스 발족식_환영사 중인 최열 이사장

사진 3_ 환경재단 글로벌 에코캠퍼스 발족식_축사 중인 정세균 前 국회의장

□ 준비위원회 33인 (가나다 순, 발족식 참가자 고딕체)

성함	직함	성함	직함	성함	직함
강미선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김형진	세종텔레콤 회장	이상봉	홍익대학교 패션대학원장

강신장	모네상스 대표	김홍신	소설가	임옥상	임옥상 미술연구소 소장, 화가
강태선	블랙야크 회장	노동영	서울대학교 부총장	장미희	명지전문대 교수, 배우
고경민	아메바컬처 대표	문국현	뉴패러다임 인스티튜트 회장	장사익	음악인
고춘홍	이브자리 회장	서명숙	제주올레 이사장	정재승	카이스트 교수
고현숙	국민대학교 교수	승효상	이로재 대표	조동성	인천대학교 총장
김문수	aSSIST경영대학원 교수	안강	안강병원 원장	조유미	퍼블리시스 윈 코리아 대표
김상헌	네이버 고문	안병덕	코오롱그룹 부회장	최병오	패션그룹 형지 회장
김용택	시인	안성기	신영균예술문화재단 이사장, 배우	최재천	이화여자대학교 석좌교수
김종량	한양대학교 이사장	유홍준	명지대학교 석좌교수	최혁용	대한 한의사협회 회장
김준목	투비소프트 회장	윤순진	서울대학교 교수	한비야	월드비전 세계시민학교 교장